


2021년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위상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14:30~17:30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후원 :  KB금융그룹



2021년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위상

• 진행사회 : 김광호 교수(한양대)

14:30~15:00	등 록
15:00~15:15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사 : 정진욱 회장(한국경제학회, 연세대)• 환영사 : 홍장표 원장(한국개발연구원) 김경모 회장(한국경제교육학회, 경상국립대)
15:15~16:15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표 1 : 2020년 초중고 학생의 경제이해력 수준과 정책적 함의 심재학 실장(한국개발연구원)발표 2 :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의 위상 장경호 교수(인하대)
16:15~16:30	휴 식
16:30~17:30	패널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 한경동 교수(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외대)• 토 론 : 김병호 소장(매일경제신문 경제경영연구소) 김자봉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민세진 교수(동국대) 박세현 교사(충남삼성고) <p>(가나다순)</p>

주최: **KEA**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KDI 한국개발연구원

주관: **KEEA** 한국경제교육학회

후원: **KB** 금융그룹



발표 1

● ● ●

2020년 초중고 학생의
경제이해력 수준과 정책적 함의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 실장

2020년 초중고 학생의 경제이해력 수준과 정책적 함의

2021. 11. 10.

심 재 학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LEADING THINK TANK OF KOREA

목 차

- 1 조사 개요
- 2 문항 설계
- 3 조사 결과
- 4 정책적 함의 및 제언

CHAPTER 01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KDI가 2020년에 수행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학교 경제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둬(경제교육지원법 근거).

- 201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학생 대상 경제이해력 조사를 재개
- 전국 단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는 2010년 첫 실시 후 2012년, 2013년에 실시

■ 조사 결과를 아동·청소년의 경제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경제이해력 관련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

조사 대상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학교급	모집단	전체 학생 수(명)	전체 학교 수 (개)	표본 설계		실제 조사	
				학생 수(명) (15,000명)	학교 수(개) (661개)	학생 수(명) (15,788명)	학교 수(개) (730개)
초등 학교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50,815	6,333	5,000	243	5,315	244
중학교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413,179	3,256	5,000	207	5,084	226
고등 학교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52,137	2,368	일반고(3,896)	일반고(156)	일반고(4,132)	일반고(196)
				특목고(101)	특목고(5)	특목고(107)	특목고(4)
				특성화고(1,003)	특성화고(50)	특성화고(1,150)	특성화고(60)
				전체(5,000)	전체(211)	전체(5,389)	전체(260)

주: 모집단은 2020년 4월 기준 전국 학교 해당 학년 학생이며, 모집단의 약 1%(학교급별 5,000명)를 표집

조사 대상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학생의 경제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학교 요인 파악을 위해 교사 대상으로 실시

학교급	대상	응답 교사 수(명) (730명)	설문 내용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또는 사회과 교사 (경제 관련 지도 교사)	244	학교 경제교육 운영 실태 및 방식, 학교 경제교육의 효과 및 성과, 교 사의 수업 방식, 교사의 경제 과목 이수 수준, 교사의 경제 관련 직무 연수 이수 수준 등
중학교	사회과 교사	226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통합사회, 경제, 실용경제, 상업경제, 국제경제 지도 교사)	260	

주: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를 위해 추출된 학교의 담당 교사를 표집

조사 방법

■ 조사 방법: 웹 서베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조사 수행**

■ 조사 기간: **2020년 11월 2일 ~ 11월 13일**

■ 표집 방법

-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17개 시·도 지역과 조사 대상 학생 수로 층화 표집**
-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를 위해 추출된 학교의 담당 교사를 표집**

CHAPTER 02

문항 설계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 개발

표준 경제 개념에 대한 지식·이해·적용 문항

- 경제이해력 조사 관련 선행 연구 중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도 측정 문항 개발」(2013. 1.)에 제시된 문항을 채택한 뒤 수정·보완
 - 이 연구의 최종 문항은 2010년 처음 개발되어 2012년까지 활용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을 토대로 파일럿 테스트,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되어 타당성·신뢰성을 확보
 - 문항 개발의 준거로 경제 개념 관련 최신 연구인 「표준 경제 개념 개발 연구」(2012. 12.)의 내용 요소를 따름. 즉, 표준 개념 경제에 대한 지식·이해·적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 (표준 경제 개념 10개, 내용 요소 26개) 희소성과 선택, 교환과 특화, 시장과 가격, 기업과 생산, 소비자와 소비, 금융과 자산 관리, 시장경제와 정부 역할,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인플레이션과 실업, 국제거래와 환율

핵심 경제 역량 측정 문항(생애주기 연구 결과 참조)

-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KDI 한국개발연구원 9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파일럿 테스트(1,673명)

예비 문항을 포함해 초등학교·중학교 22문항, 고등학교 27문항 선정

문항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2개(6학년 436명), 중학교 11개(3학년 464명), 고등학교 29개(2학년 773명)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뒤 문항 수정·보완

- 평균 점수: 초등학생 60.2점, 중학생 55.0점, 고등학생 54.2점

<시·도별 경제이해력 조사 파일럿 테스트 평균 점수>

학교급	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세종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초	60.2	62.4	64.9	-	61.4	57.3	-	-	-	60.3	-	-	57.3	-	65.3	-	58.0
중	55.0	56.4	-	53.6	-	-	61.5	45.2	53.9	61.7	-	40.5	-	-	60.1	49.1	58.0
고	54.2	57.4	49.6	60.7	73.0	41.2	37.2	-	68.8	-	55.2	55.5	59.0	45.6	55.9	45.5	52.7

KDI 한국개발연구원 10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 문항 분석

문항 분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뢰도 (Cronbach α)		0.641	0.701	0.821
난이도	정답률 20% 미만	1문항	0문항	0문항
	정답률 80% 이상	3문항	1문항	1문항
변별도(0.3 미만)		4문항	1문항	2문항
매력도가 낮은 보기가 포함된 문항		19문항	18문항	17문항

- **신뢰도**: 경제이해력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여부를 파악, **난이도**: 정답률이 지나치게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파악
- **변별도**: 점수가 높은 학생이 오히려 틀리는 문항을 파악, **매력도**: 응답 보기의 정답률이 오답률보다 낮은 문항을 파악

최종 문항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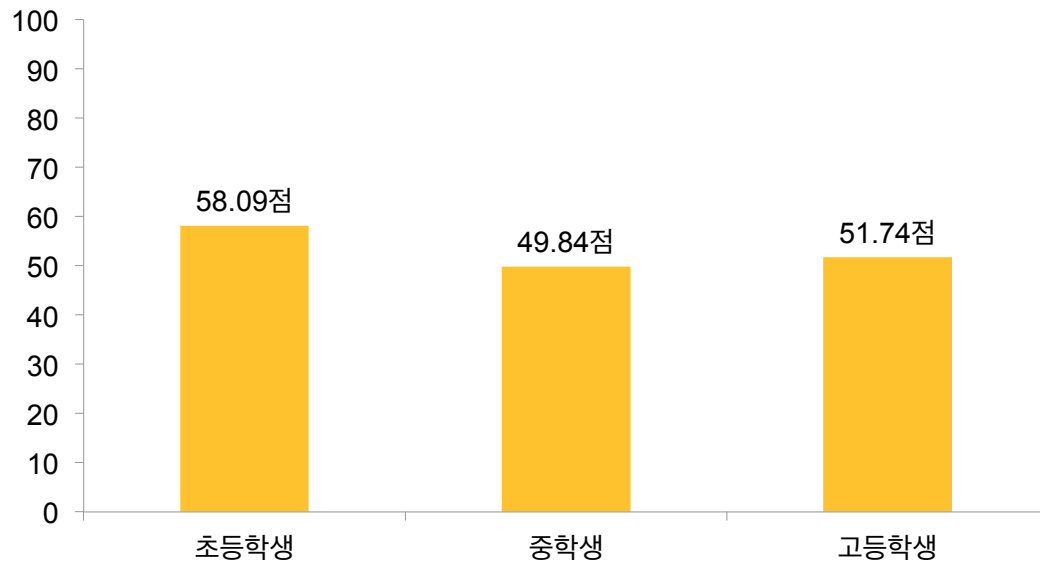
- 초등학교·중학교 각 20문항, 고등학교 25문항

CHAPTER 03

조사 결과

초·중·고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학교급별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13

초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광역시와 비광역시(도)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광역시	2,061	59.79	20.818	4.748(5,313)	.000
비광역시	3,254	57.01	20.717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수도권	2,391	58.16	22.045	.224(4,848.360)	.412
비수도권	2,924	58.03	19.714		

KDI 한국개발연구원 14

초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 현황: 정답률 평균 58.1%(난이도 보통 수준)

난이도	정답률	문항 수	구성 비율
매우 어려움	20% 미만	0	0.0%
약간 어려움	20~40% 미만	1	5.0%
보통	40~60% 미만	10	50.0%
약간 쉬움	60~80% 미만	8	40.0%
매우 쉬움	80% 이상	1	5.0%

초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항): 12번 84.8%

문12. 다음 상황을 옳게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상공간에서 거래 시 유의하는 태도]

친구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헤리는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제 페이지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 기한 등 친구 아버지의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헤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 ① 저장되어 있던 것들은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없다.(4.7%)
- ② 휴대폰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도 문제될 게 없다.(4.8%)
- ③ 이 정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피해는 없을 것이다.(3.5%)
- ④ 친구 아버지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84.8%) (정답)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 13번 34.7%

문13. 저축과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금융과 자산 관리]

- ① 저축을 많이 할수록 미래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12.8%)
- ② 저축할 때 받는 이자는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보다 많다.(34.7%) (정답)
- ③ 저축은 기업이 생산 설비를 새로 사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인다.(28.8%)
- ④ 100만 원을 저축하고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5만 원이다.(21.4%)

초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변별도 현황(변별도 = 상위집단(25%)의 정답률 - 하위집단(25%)의 정답률)

- 변별도는 평균 0.53으로 상당히 높은 편

변별도	정답률	문항 수	구성 비율
변별도 매우 높음	0.4 이상	19	95.0%
약간 변별도 있음	0.3~0.4 미만	1	5.0%
약간 변별도 낮음	0.2~0.3 미만	0	0.0%
변별도 매우 낮음	0.1~0.2 미만	0	0.0%
이상 문항	0.1 미만	0	0.0%

중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광역시와 비광역시(도)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광역시	2,084	49.80	22.28	-.110(5082)	.457
비광역시	3,000	49.87	21.59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수도권	2,447	49.34	22.70	-1.564(4971.884)	.059
비수도권	2,637	50.31	21.08		

성별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남학생	2,561	48.50	22.30	-4.667(5037.171)	.000
여학생	2,479	51.37	21.31		

중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 현황: 정답률 평균 49.8%(난이도 보통 수준)

난이도	정답률	문항 수	구성 비율
매우 어려움	20% 미만	0	0.0%
약간 어려움	20~40% 미만	5	22.7%
보통	40~60% 미만	10	45.5%
약간 쉬움	60~80% 미만	5	22.7%
매우 쉬움	80% 이상	0	0.0%

중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항): 10번 75.0%

문10. 다음 중 민주에게 가장 적합한 지불수단은? [지불수단]

대학생인 민주는 부모님께 매월 통장으로 용돈을 받는다. 민주는 돈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하며, 하루에 쓴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어 한다. 또한 민주는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불수단을 원한다.

- ① 수표(4.4%)
- ② 체크카드(75.0%)(정답)
- ③ 가상화폐(7.0%)
- ④ 신용카드(11.2%)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 4번 26.1%

문4. 시장 가격이 20%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가장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시장과 가격]

- ① 쌀(59.7%)
- ② 참고서(3.8%)
- ③ 해외여행(26.1%)(정답)
- ④ 대중교통(9.3%)

중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변별도 현황(변별도 = 상위집단(25%)의 정답률 - 하위집단(25%)의 정답률)

- 변별도는 평균 0.56으로 상당히 높은 편

변별도	정답률	문항 수	구성 비율
변별도 매우 높음	0.4 이상	18	90.0%
약간 변별도 있음	0.3 ~ 0.4 미만	1	5.0%
약간 변별도 낮음	0.2 ~ 0.3 미만	1	5.0%
변별도 매우 낮음	0.1 ~ 0.2 미만	0	0.0%
이상 문항	0.1 미만	0	0.0%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광역시와 비광역시(도)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광역시	2,352	52.09	22.86	1.008(4976.819)	.157
비광역시	3,037	51.47	22.1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수도권	2,575	51.12	23.15	-1.939(5272.345)	.027
비수도권	2,814	52.31	21.82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계열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F(df1, df2)	유의확률(p)	사후분석 Tukey HSD
일반고	4,132	53.47	22.54	145.785 (2, 5,386)	.000	특목고 > 일반고 > 특성화고
특목고	107	73.27	17.21			
특성화고	1,150	43.52	19.80			

성별 간 점수 비교

구분	조사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남학생	2,517	50.38	23.43	-4.048(5133.304)	.000
여학생	2,844	52.87	21.45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 현황: 정답률 평균 51.7%(난이도 보통 수준)

난이도	정답률	문항 수	구성 비율
매우 어려움	20% 미만	0	0.0%
약간 어려움	20~40% 미만	5	20.0%
보통	40~60% 미만	15	60.0%
약간 쉬움	60~80% 미만	5	20.0%
매우 쉬움	80% 이상	0	0.0%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항): 15번 74.9%

문15. 다음 중 지우가 믿고 거래해도 될 만한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지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신발을 사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 하늘바다: 물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상태는 A급이에요.
- 동네사람: 구매 확정 후에 제게 돈이 지급되는 안전 거래 방식도 가능합니다.
- 민트초코: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으니 메신저로 연락주세요.
- 파란마음: 연락이 많이 와서요. 입금해 주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 ① 하늘바다(7.0%)
- ② 동네사람(74.9%)(정답)
- ③ 민트초코(11.6%)
- ④ 파란마음(2.9%)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 12번 29.0%

문12. 다음은 동희 어머니가 7월 초에 받은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다.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정보]

이용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출금일 : 7월 14일
 결제계좌 : ○○은행 / 1001-808-777000 김혜미
 잔여한도 : 500,000원
 연체이자율 : 15%

[이용내역]

이용일	거래처	이용금액
6월 1일	맛있는식당	20,000원
6월 15일	색종이문구	10,000원
6월 18일	채움마트	50,000원
⋮	⋮	⋮

- ① 동희 어머니는 카드사에 빚을 진 것이다.(29.0%) (정답)
- ② 이 카드로 잔여한도보다 큰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15.8%)
- ③ 6월 이용대금에 대한 15%의 이자를 7월 14일에 내야 한다.(34.2%)
- ④ 색종이문구에서 쓴 돈은 6월 15일에 결제계좌에서 빠져나간다.(17.1%)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변별도 현황(변별도 = 상위집단(25%)의 정답률 - 하위집단(25%)의 정답률)

- 변별도는 평균 0.58로 상당히 높은 편

변별도	정답률	문항 수	구성 비율
변별도 매우 높음	0.4 이상	22	88.0%
약간 변별도 있음	0.3~0.4 미만	2	8.0%
약간 변별도 낮음	0.2~0.3 미만	1	4.0%
변별도 매우 낮음	0.1~0.2 미만	0	0.0%
이상 문항	0.1 미만	0	0.0%

학교급별 정답률 요약

정답률이 높은 문항

- 초·중·고 공통적으로 '금융과 자산 관리' 문항의 정답률이 높은 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항	개념	정답률	문항	개념	정답률	문항	개념	정답률
12	가상공간에서의 거래	84.8%	10	지불수단	75.0%	15	전자 상거래	74.9%
20	국제거래	78.4%	2	합리적 선택	68.7%	7	대체재	72.3%
9	노동	74.0%	11	투자	65.7%	16	재무 관리	68.8%
10	소비자와 소비	71.7%	8	노동	61.3%	21	고용 지표	63.5%
15	금융	67.3%	9	전자 상거래	60.8%	4	일자리	63.5%

학교급별 정답률 요약

정답률이 낮은 문항

- 초·중·고 공통적으로 '희소성과 선택'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항	개념	정답률	문항	개념	정답률	문항	개념	정답률
13	저축과 이자	34.7%	4	시장 가격과 수요량	26.1%	12	신용카드	29.0%
2	합리적 선택	41.3%	1	기회비용	31.1%	18	정부 지출	34.1%
11	소비자	41.8%	7	기업이윤	35.5%	13	이자율	37.8%
14	신용카드	46.4%	19	수출	38.7%	25	경상수지	38.0%
18	인플레이션	46.9%	17	물가	39.8%	1	희소성	39.2%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초등학교 교사 대상

초등학교 교사 특성

구분	빈도	비중
성별	남	54.5%
	여	45.5%
연령대	20대	10.7%
	30대	45.1%
	40대	35.7%
	50대	8.2%
	60대 이상	0.4%
교직 경력	3년 이하	4.9%
	4~7년	18.0%
	8~11년	21.7%
	12~15년	16.8%
	16~19년	14.8%
	20~23년	13.9%
	24년 이상	9.8%
교원 자격 취득 방법	교육대학교 졸업	95.5%
	일반대학교의 초등교육과 졸업	4.5%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초등학교 교사 대상

초등학교 교사 특성

구분		빈도	비중
심화과정 이수 과목	국어	23	9.4%
	도덕	15	6.1%
	사회	27	11.1%
	수학	18	7.4%
	과학	21	8.6%
	음악	18	7.4%
	미술	14	5.7%
	체육	26	10.7%
	실과	23	9.4%
	영어	10	4.1%
	컴퓨터	14	5.7%
	교육학	24	9.8%
기타	11	4.5%	
경제학 관련 과목 이수 개수	이수하지 않음	86	35.2%
	1~2과목	116	47.5%
	3~4과목	34	13.9%
	5~6과목	7	2.9%
	7과목 이상	1	0.4%
전체		244	100.0%

KDI 한국개발연구원 31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중학교 교사 대상

중학교 교사 특성

구분		빈도	비중
성별	남	74	32.7%
	여	152	67.3%
연령대	20대	29	12.8%
	30대	66	29.2%
	40대	78	34.5%
	50대	52	23.0%
	60대 이상	1	0.4%
교직 경력	3년 이하	35	15.5%
	4~7년	32	14.2%
	8~11년	30	13.3%
	12~15년	42	18.6%
	16~19년	26	11.5%
	20~23년	22	9.7%
	24년 이상	39	17.3%
교원 자격 취득 방법	사범대학교 졸업	188	83.2%
	교직과정 이수	38	16.8%
경제학 관련 과목 이수 개수	이수하지 않음	13	5.8%
	1~2과목	73	32.3%
	3~4과목	75	33.2%
	5~6과목	35	15.5%
	7과목 이상	30	13.3%
전체		244	100.0%

KDI 한국개발연구원 32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고등학교 교사 대상

고등학교 교사 특성

구분	빈도	비중
성별	남	47.7%
	여	52.3%
연령대	20대	10.0%
	30대	31.5%
	40대	32.7%
	50대	23.8%
	60대 이상	1.9%
교직경력	3년 이하	18.8%
	4~7년	11.2%
	8~11년	14.2%
	12~15년	10.0%
	16~19년	11.5%
	20~23년	13.5%
	24년 이상	20.8%
교원 자격 취득 방법 (복수 응답)	사범대학교 졸업	60.8%
	교직과정 이수	30.8%
	교육대학원 졸업	21.9%
경제학 관련 과목 이수 개수	이수하지 않음	6.9%
	1~2과목	26.9%
	3~4과목	34.2%
	5~6과목	13.5%
	7과목 이상	18.5%
전체	260	100.0%

KDI 한국개발연구원 33

학생 경제교육 실태별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

-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진행)** 2019학년도에 지역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 청소년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와 연계하여 운영한 학교가 운영하지 않은 학교보다 경제이해력 점수가 더 높았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운영함	144	58.51	7.84	1.845(242)	.033
운영 안 함	100	56.68	7.24		

중학생

- **(수업 참여)** 학생들이 경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df1, df2)	유의확률(p)	Tukey HSD
소극	24	48.84	9.01	3.861 (2, 223)	.022	적극 > 보통
보통	65	47.45	9.33			
적극	137	51.39	9.92			

KDI 한국개발연구원 34

학생 경제교육 실태별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

- **(경제 관련 과목 개설)** 2020학년도에 경제 관련 과목 개설 여부에 따라 경제이해력 점수에 차이를 보임. **개설한 학교의 평균 점수가 개설하지 않은 학교보다 8.23점 높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개설함	143	55.00	13.22	5.441(257.738)	.000
개설 안 함	117	46.77	11.16		

- **(경제교육 특화 사업)** 2019학년도에 **경제교육에 특화된 사업을 실시한 학교**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가 실시하지 않은 학교보다 **3.47점** 높았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실시함	139	52.92	12.49	2.166(258)	0.016
실시 안 함	121	49.45	13.33		

KDI 한국개발연구원 35

학생 경제교육 실태별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

- **(경제수업 진도)** 경제수업 진도를 많이 나갈수록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실시)** 2019학년도에 **교과수업 외에 경제교육 과정(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 학교**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가 시행하지 않은 학교보다 **4.66점** 높았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운영함	143	53.40	11.71	2.870(226.176)	.002
운영 안 함	117	48.74	14.01		

KDI 한국개발연구원 36

학생 경제교육 실태별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

- **(수업 참여)** 학생들이 경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경제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간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 차이는 약 6점**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df1, df2)	유의확률(p)	Tukey HSD
소극	45	47.61	12.64	5.540 (2, 257)	.004	적극 > 보통/소극
보통	81	49.22	13.82			
적극	134	53.80	12.12			

-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도)** 학교 경제수업에서 학습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을수록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가 높았음. **성취도가 높다고 평가한 학교가 낮다고 평가한 학교보다 8점 이상 높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df1, df2)	유의확률(p)	Tukey HSD
낮다	43	46.51	13.00	7.151 (2, 257)	.001	높다 > 낮다
보통	120	50.21	12.36			
높다	97	54.77	12.94			

KDI 한국개발연구원 37

학생 경제교육 실태별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고등학생

- **(경제수업 진도)** 경제수업 진도를 많이 나갈수록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실시)** 2019학년도에 교과수업 외에 경제교육 과정(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 학교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가 시행하지 않은 학교보다 4.66점 높았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df)	유의확률(p)
운영함	143	53.40	11.71	2.870(226.176)	.002
운영 안 함	117	48.74	14.01		

KDI 한국개발연구원 38

경제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 정도와 원인

설문 항목(교사대상 질문)	설문 항목	응답률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경제수업 시 어려움을 느낀 경우	① 매우 많다.	13.1%	14.2%	23.5%
	② 약간 있다.	66.0%	66.8%	59.2%
	(①+② 있다.)	(79.1%)	(81.0%)	(82.7%)
	(③+④ 없다.)	(20.9%)	(19.0%)	(17.3%)
	③ 거의 없다.	19.3%	15.9%	13.8%
	④ 전혀 없다.	1.6%	3.1%	3.5%
경제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느낀 가장 큰 이유(N=193)	①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	11.4%	15.8%	20.5%
	② 현실 경제에 관한 이해도 부족	32.1%	24.6%	19.5%
	③ 경제수업에 대한 학교 지원 부족	5.2%	3.8%	5.6%
	④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20.7%	39.9%	30.2%
	⑤ 자료 수집 및 선택의 어려움	24.9%	13.7%	19.1%
	⑥ 기타	5.7%	2.2%	5.1%

CHAPTER 04

정책적 함의 및 제언

학교 경제교육(공교육) 강화 필요

■ 2020년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의 평균 점수가 초등학생 58.09점, 중학생 49.84점, 고등학생 51.74점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 경제교육은 앞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문항을 분석하고 수정한 다음 실시된 조사의 평균 점수가 50점대인 것은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가 긴급요
- 직전 조사인 2013년 결과: 초등학생(58.3점), 중학생(46.3점), 고등학생(64.3점)

[참고] 미국 경제이해력 조사

구분	문항 수	경제학을 배운 학생 평균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 평균
초등학생 대상 BET(2007년)	30문항	15.83 (52.7%)	13.43 (44.8%)
중학생 대상 TEK(2010년)	40문항	23.59 (59.0%)	19.64 (49.1%)
고등학생 대상 TEL(2013년)	45문항	27.02 (60.0%)	19.68 (43.7%)

주: 초등학생 대상 BET(Basic Economics Test)
중학생 대상 TEK(Test of Economic Knowledge)
고등학생 대상 TEL(Test of Economic Literacy)

학교 경제교육(공교육) 강화 필요

■ 학생 대상 경제이해력 조사와 경제수업 담당 교사 대상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 고등학교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남.

- 경제 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교, 경제교육에 특화된 사업을 실시한 학교, 경제수업 진도를 많이 나간 학교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경제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이 높다는 의미
-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이 교육 당국과 학교, 교사 차원에서 필요
- 생애주기 상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생활의 경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짐. 따라서 학생들이 관련 경제 지식과 역량을 쌓아 합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욱 내실 있는 경제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

학교 경제교육(공교육) 강화 필요

■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된 기회는 학교(공교육)임을 감안할 때 학교 경제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높일 필요

- 현 교육과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며, 고등학교에서도 「통합사회」 교과 외에는 경제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교과 수업을 통해 충분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양한 방식의 비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 지식과 역량의 향상을 뒷받침할 필요

■ 학생들의 기본적인 경제이해력을 높이는 데 더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핵심 경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

- 경제 역량 요소들을 기반으로 **실생활 연계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할 필요
- 이번 조사에서 특목고(73.27점)와 특성화고(43.52점)의 경제이해력 차이를 확인했듯이, **학교의 계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기본적·필수적인 경제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균질한 학교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학교 경제교육(공교육) 강화 필요

■ 경제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현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육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의 한계를 노출

-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역량의 바탕이 되는 경제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은 통상 **가정, 개인, 학교(교사)**라는 3가지로 볼 수 있음.
-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변인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계소득, 부모의 학력 등 가정 변인**은 국가나 사회가 쉽게 개선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개인 변인**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나 경제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달라 일률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방법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큰 영역인 학교 경제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특히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사의 교수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실효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함.

학교 경제교육 지원 강화

이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교사의 자료개발 시간이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응할 필요(자료개발 시간이 많은 교사가 속한 학교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음.)

- 교사의 80% 이상이 경제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경제과목 이수 수와 직무 연수의 부족에 앞서 다양한 교수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과 수업에 필요한 보충자료가 부족, 현실경제 이해 부족 등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 교과와 연계한 동영상과 실물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설자료들을 개발해 교사들에게 제공할 필요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경제수업 담당 교사 대상 전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의 참여를 지원할 필요

- 초·중·고 교사 모두 경제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과 관련 직무연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인 다양한 교수법 적용과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해소 가능
 - 지난 2년간 경제수업 관련 직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 초등학교 교사 69.3%, 중학교 교사 53.5%, 고등학교 교사 47.3%
 -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수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는 매우 제한적임.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커리큘럼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안내 : 2020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데이터 제공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조사한 2020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합니다.
-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분은 '데이터 신청서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KDI에 이메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 교육기획팀
 - sslee@kdi.re.kr
 - 044-550-4650

감사합니다
THANK YOU

<첨부 자료>

조사 결과 요약¹⁾

1.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 초등학교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희소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	① 어떤 물건의 양이 적은 것이다.	1,088	20.5%
	②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만큼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다.	838	15.8%
	③ 어떤 물건의 양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있는 것이다.	807	15.2%
	④ 어떤 물건의 양이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 적은 것이다.(정답)	2,577	48.5%
	무응답	5	0.1%
2. 필통 구입 시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	① 필통의 가격을 상점별로 조사하여 비교해 본다.	497	9.4%
	② 필통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평가를 조사해 본다.	766	14.4%
	③ 필통 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구입할 우선순위를 정한다.(정답)	2,196	41.3%
	④ 필통을 샀을 때 얻는 만족이 비용보다 큰지 따져 본다.	1,815	34.1%
	무응답	41	0.8%
3.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여 교환을 하게 된 이유로 옳지 않은 것	① 화폐는 가벼워 들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	530	10.0%
	②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정답)	2,931	55.1%
	③ 화폐는 잘 변하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	563	10.6%
	④ 화폐를 사용하면 물물교환을 할 때보다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	1,235	23.2%
	무응답	56	1.1%
4. 특화하는 방법으로 생산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	① 생산성이 높아진다.(정답)	2,792	52.5%
	② 생산비가 늘어난다.	1,055	19.8%
	③ 전문 기술을 배우기 힘들어진다.	612	11.5%
	④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이 줄어든다.	782	14.7%
	무응답	74	1.4%

1) 조사 결과 요약은 '2020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조사'와 '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5. 시장 경제에서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지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① 정부 ② 소비자(정답) ③ 노동조합 ④ 상공회의소 무응답	560 3,385 666 628 76	10.5% 63.7% 12.5% 11.8% 1.4%
6.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배추 농사에 큰 피해 발생 시 나타날 현상으로 올바른 것	① 배추의 수요가 늘어난다. ② 배추의 수요가 줄어든다. ③ 배추의 공급이 늘어난다. ④ 배추의 공급이 줄어든다.(정답) 무응답	347 1,121 195 3,574 78	6.5% 21.1% 3.7% 67.2% 1.5%
7. 동네에 하나뿐이던 슈퍼마켓이 4개로 늘어났을 때 현상으로 올바른 것	① 슈퍼마켓 간의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②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③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정답) ④ 지금까지 제공해 오던 슈퍼마켓의 서비스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235 1,657 2,751 591 81	4.4% 31.2% 51.8% 11.1% 1.5%
8. 생산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	① 생산 활동에 드는 비용만 많아지면 이윤이 증가한다. ② 돈을 받고 이삿짐을 운반해 주는 것은 생산 활동이 아니다. ③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은 이윤을 얻는 것이다.(정답) ④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응답	758 569 3,446 449 93	14.3% 10.7% 64.8% 8.4% 1.7%
9.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은 사람	①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민희 ② 복권을 구입해 당첨금을 받은 현수 ③ 아나운서로 일하며 월급을 받은 정호(정답) ④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해주 무응답	649 250 3,934 387 95	12.2% 4.7% 74.0% 7.3% 1.8%
10. 게임기를 사려는 친구에게 적절하지 않은 도움말을 준 친구	① 기영: 게임기를 쓰고 있는 친구들의 평가를 들어 봐. ② 준희: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해서 다 믿지는 마. ③ 세영: 친구들 사이에 유행한다고 따라서 사는 것은 좋지 않아. ④ 규태: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비싸니 게임기 구입을 포기해.(정답) 무응답	403 670 335 3,811 96	7.6% 12.6% 6.3% 71.7% 1.8%
1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맞는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구입한 장난감이 곧 고장났지만 이미 구입한 것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진다.(정답) ② 할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신발의 제품 보증서를 잘 챙겨 두었다. ③ 전동칫솔을 새로 구입하려고 이미 사용해 본 사람들의 사용 소감을 조사하였다. ④ TV 광고에 나온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꼭 필요한 옷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무응답	2,221 1,402 1,031 553 108	41.8% 26.4% 19.4% 10.4% 2.0%
12. 개인정보와 관련한 상황을 옳게 이해한 것	① 저장되어 있던 것들은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없다. ② 휴대폰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도 문제될 게 없다. ③ 이 정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피해는 없을 것이다. ④ 친구 아버지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정답) 무응답	252 255 185 4,509 114	4.7% 4.8% 3.5% 84.8% 2.1%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13. 저축과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저축을 많이 할수록 미래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② 저축할 때 받는 이자는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보다 많다.(정답) ③ 저축은 기업이 생산 설비를 새로 사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인다. ④ 100만 원을 저축하고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았다면 이자는 5만 원이다. 무응답	680 1,846 1,529 1,139 121	12.8% 34.7% 28.8% 21.4% 2.3%
14. 신용카드에 대해 옳지 않게 말한 사람	① 승현: 신용카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정답) ② 선정: 신용카드를 쓰는 건 결국 빚을 지는 거야. ③ 현영: 신용카드를 잃어 버리면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해. ④ 성진: 신용카드를 쓰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어. 무응답	2,467 2,084 297 340 127	46.4% 39.2% 5.6% 6.4% 2.4%
15. 빌려준 돈에 대한 지호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예전에 빌려 간 돈을 모두 갚으면, 그때 빌려줄게. ② 그래. 금액이 적으면 안 갚아도 문제될 건 없지.(정답) ③ 돈을 빌리기 전에 갚을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 ④ 지난번에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 너를 어떻게 믿겠어? 무응답	522 3,578 636 450 129	9.8% 67.3% 12.0% 8.5% 2.4%
16.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국방이나 치안을 담당한다. ②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정답) ③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④ 저소득층에게 생계 보조비를 지급한다. 무응답	1,258 2,773 534 617 133	23.7% 52.2% 10.0% 11.6% 2.5%
17.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실업자가 많아진다.(정답) ② 기술 개발이 활발해진다. ③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진다. ④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한다. 무응답	2,998 330 657 1,191 139	56.4% 6.2% 12.4% 22.4% 2.6%
18. 인플레이션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① 경기가 나빠지는 현상이다. ② 경기가 좋아지는 현상이다. ③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다. ④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다.(정답) 무응답	611 793 1,275 2,495 141	11.5% 14.9% 24.0% 46.9% 2.7%
19. 선미 부모님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 시 선미네 가족이 받을 영향으로 옳은 것	①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다. ②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늘어난다. ③ 소득이 감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정답) ④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생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응답	298 1,104 3,298 474 141	5.6% 20.8% 62.1% 8.9% 2.7%
20.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무역 규모가 늘어난 경우 두 나라에 나타난 효과	① 한국과 칠레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정답) ② 한국이 이익을 얻고, 칠레는 손해를 본다. ③ 한국이 손해를 보고, 칠레는 이익을 얻는다. ④ 한국과 칠레 두 나라 모두 국내 생산에 피해가 생겨 손해를 본다. 무응답	4,168 243 270 480 154	78.4% 4.6% 5.1% 9.0% 2.9%

□ 중학교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1만 원짜리 넥타이와 장갑 중 장갑을 구매한 경우 기회비용	① 장갑 값 1만 원 ② 장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 ③ 넥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정답) ④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재화 무응답	937 1,706 1,580 857 4	18.4% 33.6% 31.1% 16.9% 0.1%
2. 합리적 선택을 가장 잘 설명한 학생	① 재웅: 만족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거야 ② 효정: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③ 한승: 만족과 비용이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는 거야 ④ 지선: 비용 대비 만족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거야(정답) 무응답	494 153 925 3,491 21	9.7% 3.0% 18.2% 68.7% 0.4%
3. 두 사람 각자 쌀과 옷감을 모두 생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생산하여 교환 시 옳지 않은 것	① 쌀과 옷감의 교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② 두 사람이 생산하는 쌀과 옷감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③ 두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쌀과 옷감이 더 풍족해질 것이다. ④ 두 사람이 쌀과 옷감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다.(정답) 무응답	593 881 966 2,592 52	11.7% 17.3% 19.0% 51.0% 1.0%
4. 시장 가격이 20%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가장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① 쌀 ② 참고서 ③ 해외여행(정답) ④ 대중교통 무응답	3,034 195 1,326 471 58	59.7% 3.8% 26.1% 9.3% 1.1%
5. 폭설로 인해 딸기 재배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① 딸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② 딸기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정답) ③ 딸기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④ 딸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무응답	378 2,317 549 1,775 65	7.4% 45.6% 10.8% 34.9% 1.3%
6. 생산 활동에 해당하는 것	① 운전기사 시내버스를 운전한다.(정답) ② 제조업체가 공장 임대료를 지불한다. ③ 여행사가 은행에서 빌린 운영 자금을 갚는다. ④ 금융회사 직원이 단체 헌혈 운동에 참여한다. 무응답	2,443 1,080 500 985 76	48.1% 21.2% 9.8% 19.4% 1.5%
7.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이윤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정답) ② 경쟁 기업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③ 이윤은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을 때도 발생한다. ④ 이윤은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무응답	1,806 965 968 1,248 97	35.5% 19.0% 19.0% 24.5% 1.9%
8. 지수의 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지수가 받은 보수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이다. ② 성과급은 직원의 업무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③ 지수의 노동은 국가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답) ④ 지수가 신약을 개발한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 있다. 무응답	694 610 3,114 555 111	13.7% 12.0% 61.3% 10.9% 2.2%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9. 전자 상거래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가격 비교 사이트의 정보를 최종 정보로 받아들인다.(정답)	3,089	60.8%
	②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 일단 의심한다.	675	13.3%
	③ 물품을 수령할 때 주문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447	8.8%
	④ 현금 결제 시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755	14.9%
	무응답	118	2.3%
10. 민주에게 가장 적합한 지불수단	① 수표	223	4.4%
	② 체크카드(정답)	3,811	75.0%
	③ 가상화폐	358	7.0%
	④ 신용카드	569	11.2%
	무응답	123	2.4%
11. 경수의 투자 성향(안정성을 우선)을 고려할 때 가장 추천하는 투자 방법	① 저축 은행의 정기 예금에 가입한다.(정답)	3,340	65.7%
	② 건실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구입한다.	441	8.7%
	③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다.	691	13.6%
	④ 전문가가 추천한 국내 대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	480	9.4%
	무응답	132	2.6%
12. 신용조회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달라진다.	433	8.5%
	②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신용평점이 나빠진다.	667	13.1%
	③ 신용평점을 매길 때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만 활용된다.(정답)	2,867	56.4%
	④ (가)에는 ‘통신비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840	16.5%
	무응답	277	5.4%
13.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 해야 할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경제 안정을 위해 치안을 확립한다.	953	18.7%
	② 경차를 생산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정답)	2,369	46.6%
	③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686	13.5%
	④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는 기업을 규제한다.	866	17.0%
	무응답	210	4.1%
14. 국세에 해당하는 것	① 소득세(정답)	2,559	50.3%
	② 취득세	720	14.2%
	③ 주민세	1,080	21.2%
	④ 자동차세	506	10.0%
	무응답	219	4.3%
15.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	① 1년 동안의 수출액	674	13.3%
	② 1년 동안의 조세 수입 총액	593	11.7%
	③ 1년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액	560	11.0%
	④ 1년 동안의 재화와 서비스 총생산액(정답)	3,036	59.7%
	무응답	221	4.3%
16.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① 대형 백화점에서 매장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	856	16.8%
	②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	613	12.1%
	③ 국내 최고 인기 가수가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1,167	23.0%
	④ 적십자사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정답)	2,219	43.6%
	무응답	229	4.5%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17. 물가 수준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① 이자율	826	16.2%
	② 부동산 가격	562	11.1%
	③ 화폐의 구매력(정답)	2,022	39.8%
	④ 소비자 물가지수	1,445	28.4%
	무응답	229	4.5%
18. 실업률 정의로 옳은 것	① 실업자 수/총인구*100	684	13.5%
	② 실업자 수/취업자 수*100	1,005	19.8%
	③ 실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85	9.5%
	④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정답)	2,677	52.7%
	무응답	233	4.6%
19.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없는 것	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다.	478	9.4%
	②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정답)	1,966	38.7%
	③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가 증가한다.	1,763	34.7%
	④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다.	637	12.5%
	무응답	240	4.7%
20.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할 때 이득 보는 사람	① 수출업자, 해외 여행하는 내국인	874	17.2%
	② 수출업자, 국내 여행하는 외국인(정답)	2,057	40.5%
	③ 수입업자, 해외 여행하는 내국인	882	17.3%
	④ 수입업자, 국내 여행하는 외국인	1,022	20.1%
	무응답	249	4.9%

□ 고등학교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1.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것	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 수요량을 줄인다.(정답)	2,115	39.2%
	② 자원을 개발하여 물건의 공급을 늘린다.	945	17.5%
	③ 가장 필요한 물건을 우선적으로 생산한다.	1,734	32.2%
	④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592	11.0%
	무응답	3	0.1%
2.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① 포기한 대안의 가치를 모두 더해 측정한다.	780	14.5%
	② 회수할 수 없는 비용도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769	14.3%
	③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포함한다.(정답)	3,194	59.3%
	④ 동일한 선택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기회비용은 서로 같다.	620	11.5%
	무응답	26	0.5%
3. 합리적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1,708	31.7%
	② 어떤 재화를 구입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의 가격이다.(정답)	2,236	41.5%
	③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872	16.2%
	④ 선택에서 예상되는 편익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519	9.6%
	무응답	54	1.0%
4. 다음 자료(미래 일자리)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	① 현재의 고속권 일자리는 미래에도 사라질 위험이 없을 것이다.(정답)	3,423	63.5%
	②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에 능숙한 사람이 일자리를 갖기 쉬울 것이다.	739	13.7%
	③ 창의성·감수성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사라질 위험이 적을 것이다.	706	13.1%
	④ 기계에 의해 대체되기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444	8.2%
	무응답	77	1.4%
5. 한국이 중국에 비해 동일한 비용으로 자동차 3배, 컴퓨터 2배 더 생산할 수 있을 때, 양국이 생산 및 교역 시 옳은 것	① 한국이 자동차와 컴퓨터를 모두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1,543	28.6%
	②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중국이 컴퓨터를 생산하여 교역을 하면 한국만 이득을 얻을 있다.	482	8.9%
	③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중국이 컴퓨터를 생산하여 교역을 하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정답)	2,618	48.6%
	④ 한국이 컴퓨터를 생산하고 중국이 자동차를 생산하여 교역을 하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652	12.1%
	무응답	94	1.7%
6.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시장은 거래비용을 줄여 교환을 활성화한다.	1,119	20.8%
	② 시장에서는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도 거래된다.	611	11.3%
	③ 시장은 외환 시장과 같이 가상적인 공간에서도 형성된다.	834	15.5%
	④ 시장은 희소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정답)	2,721	50.5%
	무응답	104	1.9%
7.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대체재일 때 돼지고기 사료 값 상승 시 옳은 것	① 돼지고기의 가격이 하락한다.	224	4.2%
	② 돼지고기의 판매량이 증가한다.	445	8.3%
	③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한다.	712	13.2%
	④ 닭고기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정답)	3,895	72.3%
	무응답	113	2.1%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8. 기업 이윤의 원천과 가장 거리가 먼 것	①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정답)	2,464	45.7%
	②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디자인 적용	692	12.8%
	③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방법 혁신	563	10.4%
	④ 조직 개편으로 기업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1,549	28.7%
	무응답	121	2.2%
9.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① 근로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39	13.7%
	② 위험 없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만을 추구한다.	663	12.3%
	③ 이윤을 추구하므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645	12.0%
	④ 경영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정답)	3,216	59.7%
	무응답	126	2.3%
10.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가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를 통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683	12.7%
	②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 소비 행위에 해당한다.(정답)	3,109	57.7%
	③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해야 한다.	681	12.6%
	④ 시장의 발달로 가게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고 있다.	779	14.5%
	무응답	137	2.5%
11. 소비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과시 소비는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752	14.0%
	②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느끼는 만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답)	2,723	50.5%
	③ 과소비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가 많아지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69	14.3%
	④ 지나친 소비는 저축을 하락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003	18.6%
	무응답	142	2.6%
12. 동희 어머니가 7월 초에 받은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옳게 설명한 것	① 동희 어머니는 카드사에 빚을 진 것이다.(정답)	1,563	29.0%
	② 이 카드로 잔여한도보다 큰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852	15.8%
	③ 6월 이용대금에 대한 15%의 이자를 7월 14일에 내야 한다.	1,841	34.2%
	④ 색종이문구에서 쓴 돈은 6월 15일에 결제계좌에서 빠져나간다.	923	17.1%
	무응답	210	3.9%
13. 현수가 가입한 정기예금의 실질 이자율	① 2%(정답)	2,037	37.8%
	② 3%	1,056	19.6%
	③ 5%	1,595	29.6%
	④ 8%	520	9.6%
	무응답	181	3.4%
14.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541	10.0%
	②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634	11.8%
	③ 은행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의 원금이 보장된다.	1,046	19.4%
	④ 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보다 주주에게 우선 변제한다.(정답)	2,981	55.3%
	무응답	187	3.5%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15. 지우가 믿고 거래해도 될 판매자	① 하늘바다 ② 동네사람(정답) ③ 민트초코 ④ 파란마음 무응답	375 4,037 627 156 194	7.0% 74.9% 11.6% 2.9% 3.6%
16. 은지의 재무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배낭여행 경비 마련을 재무 목표로 설정한다. ②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패턴을 분석한다. ③ 재무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친구들과 상의해 목표를 수정한다. ④ 원금 손실 위험이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한다.(정답) 무응답	287 501 695 3,709 197	5.3% 9.3% 12.9% 68.8% 3.7%
17.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② 기업에 의무적으로 정화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 ③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한다.(정답) ④ 기업들이 오염 물질 배출권을 거래하여 생산 활동을 하게 한다. 무응답	361 493 2,468 1,863 204	6.7% 9.1% 45.8% 34.6% 3.8%
18.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① 총수요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된다.(정답) ② 이자율이 하락하여 경기가 회복된다. ③ 세금이 증가하여 경기가 더 침체된다. ④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가 더 침체된다. 무응답	1,838 750 1,790 804 207	34.1% 13.9% 33.2% 14.9% 3.8%
19. 한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 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	① 경상 수지 ② 실질 국내 총생산(정답) ③ 명목 국내 총생산 ④ 생산자 물가 지수 무응답	376 3,147 850 807 209	7.0% 58.4% 15.8% 15.0% 3.9%
20.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① 특허 제도 폐지(정답) ② 개인의 재산권 보호 ③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확충 ④ 연구 및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무응답	3,001 787 684 703 214	55.7% 14.6% 12.7% 13.0% 4.0%
21. 구직을 단념했던 사람이 취업했을 때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로 옳은 것	① 실업률이 상승한다. ②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정답) ④ 비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무응답	458 523 3,424 769 215	8.5% 9.7% 63.5% 14.3% 4.0%
22. 경기 과열 시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적절한 것	① 세율을 인하한다. ②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 ③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정답) ④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무응답	859 850 2,547 913 220	15.9% 15.8% 47.3% 16.9% 4.1%

문제	구분	응답수	응답률
23. 외국에서 마늘 수입 시 마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나타날 효과	① 외국의 마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본다.	856	15.9%
	② 국내의 마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본다.	571	10.6%
	③ 국내의 마늘 생산자는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902	16.7%
	④ 국내의 마늘 생산자는 손해를 보지만 소비자는 이득을 본다.(정답)	2,838	52.7%
	무응답	222	4.1%
24.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	① 원유 수입 증가	690	12.8%
	②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증가(정답)	2,351	43.6%
	③ 해외로 나가는 어학 연수생 증가	944	17.5%
	④ 외국으로 지급되는 기술 사용료의 증가	1,176	21.8%
	무응답	228	4.2%
25. 경상 수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① 해외여행의 감소는 경상 수지 적자 요인이다.	937	17.4%
	② 상품 수출의 증가는 경상 수지 적자 요인이다.	1,011	18.8%
	③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 흑자 요인이다.(정답)	2,049	38.0%
	④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증가는 경상 수지 흑자 요인이다.	1,155	21.4%
	무응답	237	4.4%

2. 학교 경제교육 실태 조사

□ 초등학교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2019학년도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과정 운영 여부	① 운영했다.	72	29.5%
	② 운영하지 않았다.	172	70.5%
학교 교과수업 외 이뤄지는 경제 교육 형태 (N=72)	① 동아리 활동	20	27.8%
	② 방과 후 학교	1	1.4%
	③ 자유학기	27	37.5%
	④ 기타	24	33.3%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배정 시간(학기당) (N=72)	① 4시간 미만	46	63.9%
	② 4시간~7시간	16	22.2%
	③ 8시간~11시간	6	8.3%
	④ 12시간~15시간	3	4.2%
	⑤ 16시간~19시간	0	0.0%
	⑥ 20시간 이상	1	1.4%
2019년 학년도 학교가 시행한 제도 중 경제교육에 특화된 것(복수 응답)	①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6	2.5%
	② 꿈끼탐색주간	53	21.7%
	③ 학교 역점·특색사업	14	5.7%
	④ 범교과	115	47.1%
	⑤ 기타	31	12.7%
	⑥ 없음.	73	29.9%
2019학년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한 경제수업 차시	① 0차시	100	41.0%
	② 1~3차시	87	35.7%
	③ 4~6차시	38	15.6%
	④ 7~9차시	2	0.8%
	⑤ 10~12차시	9	3.7%
	⑥ 13~15차시	1	0.4%
	⑦ 16차시 이상	7	2.9%
2019학년도 학교가 시행한 교육정책사업(복수 응답)	① 다문화중점학교	21	8.6%
	② 두드림학교	63	25.8%
	③ 혁신학교	50	20.5%
	④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연계학교	59	24.2%
	⑤ Wee클래스	63	25.8%
	⑥ 소프트웨어시범학교	45	18.4%
	⑦ 스템교육선도학교	9	3.7%
	⑧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25	10.2%
	⑨ 작은학교	9	3.7%
	⑩ 기타	37	15.2%
	⑪ 없음.	41	16.8%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전체수업에서 역량 중심 교육 비중(%)	① 10% 미만	4	1.6%
	② 10%~19%	20	8.2%
	③ 20%~29%	29	11.9%
	④ 30%~39%	41	16.8%
	⑤ 40%~49%	21	8.6%
	⑥ 50% 이상	129	52.9%
경제수업 자료의 조사·수집·개발에 투입하는 시간(연간)	① 0시간	7	2.9%
	② 1~9시간	85	34.8%
	③ 10~29시간	124	50.8%
	④ 30~59시간	23	9.4%
	⑤ 60~99시간	2	0.8%
	⑦ 100시간 이상	3	1.2%
경제수업과 관련 교사 직무연수 이수 시간(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① 0시간	169	69.3%
	② 1~14시간	12	4.9%
	③ 15~29시간	29	11.9%
	④ 30~59시간	27	11.1%
	⑤ 60~119시간	7	2.9%
	⑥ 120시간 이상	0	0.0%
경제수업 시 어려움을 느낀 경우	① 매우 많다.	32	13.1%
	② 약간 있다.	161	66.0%
	(①+② 있다.)	(193)	(79.1%)
	(③+④ 없다.)	(51)	(20.9%)
	③ 거의 없다.	47	19.3%
	④ 전혀 없다.	4	1.6%
경제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느낀 가장 큰 이유 (N=193)	①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	22	11.4%
	② 현실 경제에 관한 이해도 부족	62	32.1%
	③ 경제수업에 대한 학교 지원 부족	10	5.2%
	④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40	20.7%
	⑤ 자료 수집 및 선택의 어려움	48	24.9%
	⑥ 기타	11	5.7%
온라인 경제수업 진행 유형	①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49	20.1%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175	71.7%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16	6.6%
	④ 기타	4	1.6%
일반적으로 마치는 경제수업 진도	① 60% 미만	28	11.5%
	② 60~69%	17	7.0%
	③ 70~79%	28	11.5%
	④ 80~89%	42	17.2%
	⑤ 90~99%	37	15.2%
	⑥ 100%	92	37.7%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경제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비중(%)	① 0%	2	0.8%
	② 1~9%	1	0.4%
	③ 10~19%	8	3.3%
	④ 20~29%	32	13.1%
	⑤ 30~39%	54	22.1%
	⑥ 40~49%	39	16.0%
	⑦ 50% 이상	108	44.3%
경제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 수행 방식 결정 방법	① 학생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4	1.6%
	② 학생이 대체로 결정한다.	8	3.3%
	(①+② 학생이 결정한다.)	(12)	(4.9%)
	③ 학생과 선생님이 절충하여 결정한다.	102	41.8%
	(④+⑤ 선생님이 결정한다.)	(130)	(53.3%)
	④ 선생님이 대체로 결정한다.	114	46.7%
경제수업에서 학생 상호 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 학습 내용 및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	⑤ 선생님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16	6.6%
	①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5	2.0%
	② 약간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7	11.1%
	(①+②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2)	(13.1%)
	③ 보통이다.	59	24.2%
	(④+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53)	(62.7%)
학교 경제교육의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 도움 여부	④ 약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10	45.1%
	⑤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3	17.6%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	0.4%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4	5.7%
	(①+② 도움이 안 된다.)	(15)	(6.1%)
	③ 보통이다.	41	16.8%
학교 경제교육의 현실 경제 이해 도움 여부	(④+⑤ 도움이 된다.)	(188)	(77.0%)
	④ 약간 도움이 된다.	126	51.6%
	⑤ 매우 도움이 된다.	62	25.4%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	1.6%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1	8.6%
	(①+② 도움이 안 된다.)	(25)	(10.2%)
	③ 보통이다.	38	15.6%
	(④+⑤ 도움이 된다.)	(181)	(74.2%)
	④ 약간 도움이 된다.	132	54.1%
	⑤ 매우 도움이 된다.	49	20.1%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학교 경제교육의 실생활 경제 문제 대응 역량 강화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5	2.0%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7	11.1%
	(①+② 도움이 안 된다.)	(32)	(13.1%)
	③ 보통이다.	48	19.7%
	(④+⑤ 도움이 된다.)	(164)	(67.2%)
	④ 약간 도움이 된다.	113	46.3%
경제수업에서 학생 참여도	⑤ 매우 도움이 된다.	51	20.9%
	① 매우 소극적이다.	1	0.4%
	② 약간 소극적이다.	28	11.5%
	(①+② 소극적이다.)	(29)	(11.9%)
	③ 보통이다.	63	25.8%
	(④+⑤ 적극적이다.)	(152)	(62.3%)
경제수업 학습목표에 대한 학생 성취도	④ 약간 적극적이다.	114	46.7%
	⑤ 매우 적극적이다.	38	15.6%
	① 매우 낮다.	0	0.0%
	② 약간 낮다.	19	7.8%
	(①+② 낮다.)	(19)	(7.8%)
	③ 보통이다.	99	40.6%
학교의 경제교육 과정 운영 만족도	(④+⑤ 높다.)	(126)	(51.6%)
	④ 약간 높다.	110	45.1%
	⑤ 매우 높다.	16	6.6%
	① 매우 불만족한다.	5	2.0%
	② 약간 불만족한다.	30	12.3%
	(①+② 불만족한다.)	(35)	(14.3%)
학교의 경제교육 과정 운영 만족도	③ 보통이다.	124	50.8%
	(④+⑤ 만족한다.)	(85)	(34.8%)
	④ 약간 만족한다.	70	28.7%
	⑤ 매우 만족한다.	15	6.1%

□ 중학교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2019학년도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과정 운영 여부	① 운영했다.	30	13.3%
	② 운영하지 않았다.	196	86.7%
학교 교과수업 외 이뤄지는 경제 교육 형태 (N=30)	① 동아리 활동	12	40.0%
	② 방과 후 학교	0	0.0%
	③ 자유학기	17	56.7%
	④ 기타	1	3.3%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배정 시간(학기당) (N=30)	① 4시간 미만	14	46.7%
	② 4시간~7시간	5	16.7%
	③ 8시간~11시간	1	3.3%
	④ 12시간~15시간	3	10.0%
	⑤ 16시간~19시간	4	13.3%
	⑥ 20시간 이상	3	10.0%
2019학년도 학교가 시행한 제도 중 경제교육에 특화된 것(복수 응답)	① 교과중점학교	6	2.7%
	② 교과교실제	24	10.6%
	③ 소인수과목 운영	1	0.4%
	④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4	1.8%
	⑤ 꿈끼탐색주간	41	18.1%
	⑥ 학교 역점 특색사업	7	3.1%
	⑦ 범교과	55	24.3%
	⑧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2	0.9%
	⑨ 기타	16	7.1%
	⑩ 없음.	110	48.7%
2019학년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한 경제수업 차시	① 0차시	124	54.9%
	② 1~3차시	76	33.6%
	③ 4~9차시	21	9.3%
	④ 10차시 이상	5	2.2%
2019학년도 학교가 시행한 교육정책사업(복수 응답)	① 다문화중점학교	13	5.8%
	② 두드림학교	49	21.7%
	③ 혁신학교	50	22.1%
	④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연계학교	63	27.9%
	⑤ Wee클래스	118	52.2%
	⑥ 소프트웨어시범학교	18	8.0%
	⑦ 스팀교육선도학교	5	2.2%
	⑧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8	3.5%
	⑨ 작은학교	8	3.5%
	⑩ 기타	28	12.4%
	⑪ 없음.	26	11.5%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전체수업에서 역량 중심 교육 비중(%)	① 10% 미만 ② 10%~19% ③ 20%~29% ④ 30%~39% ⑤ 40%~49% ⑥ 50% 이상	1 22 33 55 20 95	0.4% 9.7% 14.6% 24.3% 8.8% 42.0%
경제수업 자료의 조사·수집·개발에 투입하는 시간(연간)	① 0시간 ② 1~9시간 ③ 10~29시간 ④ 30~59시간 ⑤ 60~99시간 ⑥ 100시간 이상	2 25 100 71 8 20	0.9% 11.1% 44.2% 31.4% 3.5% 8.8%
경제수업과 관련 교사 직무연수 이수 시간(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① 0시간 ② 1~14시간 ③ 15~29시간 ④ 30~59시간 ⑤ 60~119시간 ⑥ 120시간 이상	121 15 44 37 9 0	53.5% 6.6% 19.5% 16.4% 4.0% 0.0%
경제수업 시 어려움을 느낀 경우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①+② 있다.) (③+④ 없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32 151 (183) (43) 36 7	14.2% 66.8% (81.0%) (19.0%) 15.9% 3.1%
경제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느낀 가장 큰 이유 (N=183)	①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 ② 현실 경제에 관한 이해도 부족 ③ 경제수업에 대한 학교 지원 부족 ④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⑤ 자료 수집 및 선택의 어려움 ⑥ 기타	29 45 7 73 25 4	15.8% 24.6% 3.8% 39.9% 13.7% 2.2%
온라인 경제수업 진행 유형	①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 기타	70 130 22 4	31.0% 57.5% 9.7% 1.8%
일반적으로 마치는 경제수업 진도	① 60% 미만 ② 60~69% ③ 70~79% ④ 80~89% ⑤ 90~99% ⑥ 100%	7 12 23 58 45 81	3.1% 5.3% 10.2% 25.7% 19.9% 35.8%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경제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비중(%)	① 0% ② 1~9% ③ 10~19% ④ 20~29% ⑤ 30~39% ⑥ 40~49% ⑦ 50% 이상	4 1 19 64 73 33 32	1.8% 0.4% 8.4% 28.3% 32.3% 14.6% 14.2%
경제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 수행 방식 결정 방법	① 학생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생이 대체로 결정한다. (①+② 학생이 결정한다.) ③ 학생과 선생님이 절충하여 결정한다. (④+⑤ 선생님이 결정한다.) ④ 선생님이 대체로 결정한다. ⑤ 선생님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2 2 (4) 49 (173) 143 30	0.9% 0.9% (1.8%) 21.7% (76.5%) 63.3% 13.3%
경제수업에서 학생 상호 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 학습 내용 및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	①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② 약간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①+②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④ 약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 34 (35) 83 (108) 82 26	0.4% 15.0% (15.5%) 36.7% (47.8%) 36.3% 11.5%
학교 경제교육의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①+②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⑤ 도움이 된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0 8 (8) 34 (184) 113 71	0.0% 3.5% (3.5%) 15.0% (81.4%) 50.0% 31.4%
학교 경제교육의 현실 경제 이해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①+②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⑤ 도움이 된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0 15 (15) 45 (166) 123 43	0.0% 6.6% (6.6%) 19.9% (73.5%) 54.4% 19.0%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학교 경제교육의 실생활 경제 문제 대응 역량 강화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0.0%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0	13.3%
	(①+② 도움이 안 된다.)	(30)	(13.3%)
	③ 보통이다.	47	20.8%
	(④+⑤ 도움이 된다.)	(149)	(65.9%)
	④ 약간 도움이 된다.	118	52.2%
경제수업에서 학생 참여도	⑤ 매우 도움이 된다.	31	13.7%
	① 매우 소극적이다.	2	0.9%
	② 약간 소극적이다.	22	9.7%
	(①+② 소극적이다.)	(24)	(10.6%)
	③ 보통이다.	65	28.8%
	(④+⑤ 적극적이다.)	(137)	(60.6%)
경제수업 학습목표에 대한 학생 성취도	④ 약간 적극적이다.	109	48.2%
	⑤ 매우 적극적이다.	28	12.4%
	① 매우 낮다.	0	0.0%
	② 약간 낮다.	24	10.6%
	(①+② 낮다.)	(24)	(10.6%)
	③ 보통이다.	105	46.5%
학교의 경제교육 과정 운영 만족도	(④+⑤ 높다.)	(97)	(42.9%)
	④ 약간 높다.	88	38.9%
	⑤ 매우 높다.	9	4.0%
	① 매우 불만족한다.	1	0.4%
	② 약간 불만족한다.	18	8.0%
	(①+② 불만족한다.)	(19)	(8.4%)
학교의 경제교육 과정 운영 만족도	③ 보통이다.	125	55.3%
	(④+⑤ 만족한다.)	(82)	(36.3%)
	④ 약간 만족한다.	71	31.4%
	⑤ 매우 만족한다.	11	4.9%

□ 고등학교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2019학년도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과정 운영 여부	① 운영했다.	143	55.0%
	② 운영하지 않았다.	117	45.0%
학교 교과수업 외 이뤄지는 경제교육 형태 (N=143)	① 동아리 활동	113	79.0%
	② 방과 후 학교	12	8.4%
	③ 자유학기	0	0.0%
	④ 기타	18	12.6%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배정 시간(학기당) (N=143)	① 4시간 미만	89	62.2%
	② 4~7시간	15	10.5%
	③ 8~11시간	9	6.3%
	④ 12~15시간	8	5.6%
	⑤ 16~19시간	12	8.4%
	⑥ 20시간 이상	10	7.0%
2019학년도 학교가 시행한 제도 중 경제교육에 특화된 것(복수 응답)	① 교과중점학교	18	6.9%
	② 교과교실제	21	8.1%
	③ 소인수과목 운영	26	10.0%
	④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4	1.5%
	⑤ 꿈끼탐색주간	19	7.3%
	⑥ 학교 역점 특색사업	14	5.4%
	⑦ 범교과	20	7.7%
	⑧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44	16.9%
	⑨ 기타	30	11.5%
	⑩ 없음.	121	46.5%
2019학년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한 경제수업 차시	① 0차시	180	69.2%
	② 1~5차시	62	23.8%
	③ 6차시 이상	18	6.9%
2019학년도 학교가 시행한 교육정책사업 (복수 응답)	① 다문화중점학교	7	2.7%
	② 두드림학교	23	8.8%
	③ 혁신학교	47	18.1%
	④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및 연계학교	22	8.5%
	⑤ Wee클래스	135	51.9%
	⑥ 소프트웨어시범학교	17	6.5%
	⑦ 스템교육선도학교	10	3.8%
	⑧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2	0.8%
	⑨ 작은학교	1	0.4%
	⑩ 기타	44	16.9%
	⑪ 없음.	66	25.4%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전체수업에서 역량 중심 교육 비중(%)	① 10% 미만	5	1.9%
	② 10~19%	33	12.7%
	③ 20~29%	50	19.2%
	④ 30~39%	65	25.0%
	⑤ 40~49%	25	9.6%
	⑥ 50% 이상	82	31.5%
경제수업 자료의 조사·수집·개발에 투입하는 시간(연간)	① 0시간	12	4.6%
	② 1~10시간	53	20.4%
	③ 11~20시간	40	15.4%
	④ 21~30시간	30	11.5%
	⑤ 31~40시간	9	3.5%
	⑥ 41~50시간	25	9.6%
	⑦ 51~100시간	49	18.8%
	⑧ 100시간 초과	42	16.2%
경제수업과 관련 교사 직무연수 이수 시간(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① 0시간	123	47.3%
	② 1~14시간	16	6.2%
	③ 15~29시간	45	17.3%
	④ 30~59시간	47	18.1%
	⑤ 60~119시간	22	8.5%
	⑥ 120시간 이상	7	2.7%
경제수업 시 어려움을 느낀 경우	① 매우 많다.	61	23.5%
	② 약간 있다.	154	59.2%
	(①+② 있다.)	(215)	(82.7%)
	(③+④ 없다.)	(45)	(17.3%)
	③ 거의 없다.	36	13.8%
	④ 전혀 없다.	9	3.5%
경제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느낀 가장 큰 이유 (N=215)	①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	44	20.5%
	② 현실 경제에 관한 이해도 부족	42	19.5%
	③ 경제수업에 대한 학교 지원 부족	12	5.6%
	④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65	30.2%
	⑤ 자료 수집 및 선택의 어려움	41	19.1%
	⑥ 기타	11	5.1%
온라인 경제수업 진행 유형	①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66	25.4%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146	56.2%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26	10.0%
	④ 기타	22	8.5%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일반적으로 마치는 경제수업 진도	① 60% 미만 ② 60~69% ③ 70~79% ④ 80~89% ⑤ 90~99% ⑥ 100%	29 15 40 64 50 62	11.2% 5.8% 15.4% 24.6% 19.2% 23.8%
경제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비중 (%)	① 0% ② 1~9% ③ 10~19% ④ 20~29% ⑤ 30~39% ⑥ 40~49% ⑦ 50% 이상	4 2 40 78 62 27 47	1.5% 0.8% 15.4% 30.0% 23.8% 10.4% 18.1%
경제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 수행방 식 결정 방법	① 학생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생이 대체로 결정한다. (①+② 학생이 결정한다.) ③ 학생과 선생님이 절충하여 결정한다. (④+⑤ 선생님이 결정한다.) ④ 선생님이 대체로 결정한다. ⑤ 선생님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1 7 (8) 91 (161) 148 13	0.4% 2.7% (3.1%) 35.0% (61.9%) 56.9% 5.0%
경제수업에서 학생 상호 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 학습 내용 및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	①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② 약간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①+②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④ 약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5 41 (46) 88 (126) 100 26	1.9% 15.8% (17.7%) 33.8% (48.5%) 38.5% 10.0%
학교 경제교육의 경제 개념 및 이론 습득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①+②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⑤ 도움이 된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0 12 (12) 41 (207) 109 98	0.0% 4.6% (4.6%) 15.8% (79.6%) 41.9% 37.7%
학교 경제교육의 현실 경제 이해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①+②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⑤ 도움이 된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3 16 (19) 45 (196) 128 68	1.2% 6.2% (7.3%) 17.3% (75.4%) 49.2% 26.2%

설문요지	조사항목	빈도	비중
학교 경제교육의 실생활 경제 문제 대응 역량 강화 도움 여부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0.8%
	②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2	8.5%
	(①+② 도움이 안 된다.)	(24)	(9.2%)
	③ 보통이다.	63	24.2%
	(④+⑤ 도움이 된다.)	(173)	(66.5%)
	④ 약간 도움이 된다.	127	48.8%
경제수업에서 학생 참여도	⑤ 매우 도움이 된다.	46	17.7%
	① 매우 소극적이다.	8	3.1%
	② 약간 소극적이다.	37	14.2%
	(①+② 소극적이다.)	(45)	(17.3%)
	③ 보통이다.	81	31.2%
	(④+⑤ 적극적이다.)	(134)	(51.5%)
경제수업 학습목표에 대한 학생 성취도	④ 약간 적극적이다.	99	38.1%
	⑤ 매우 적극적이다.	35	13.5%
	① 매우 낮다.	7	2.7%
	② 약간 낮다.	36	13.8%
	(①+② 낮다.)	(43)	(16.5%)
	③ 보통이다.	120	46.2%
학교의 경제교육 과정 운영 만족도	(④+⑤ 높다.)	(97)	(37.3%)
	④ 약간 높다.	82	31.5%
	⑤ 매우 높다.	15	5.8%
	① 매우 불만족한다.	15	5.8%
	② 약간 불만족한다.	55	21.2%
	(①+② 불만족한다.)	(70)	(26.9%)
학교의 경제교육 과정 운영 만족도	③ 보통이다.	119	45.8%
	(④+⑤ 만족한다.)	(71)	(27.3%)
	④ 약간 만족한다.	60	23.1%
	⑤ 매우 만족한다.	11	4.2%

발표 2

• • •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의 위상

장경호

인하대 교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의 위상

장경호 (인하대학교)

I. 서론

경제 교육은 시민이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가 경제 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사업을 발표·시행했던 것도 경제·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¹⁾ 학교 경제 교육은 국가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수행되는 교육으로 국민들의 경제 역량(Economic literacy)의 근간이 되며, 대학교 경제학 교육 및 학교 밖 평생 경제교육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 경제 교육은 대체로 강화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 현장을 보면 정책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에 응시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 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²⁾ 경제 과목 응시자의 급감한 데는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어렵게 느낀다거나,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최대 4개에서 2009년 교육과정부터 2개로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필수 과목의 최소화, 학습 내용의 축소, 선택 과목 증가, 고교 학점제 도입, 자유학기제 도입, 비교과 창제 활동 확대 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경제 교육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경제학의 체계를 고집하며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에게 경제학 원론의 내용을 빠짐없이 가르치려다 보니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경제학의 기초조차 가르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학) 교육이 출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경제 교육에서 이를 반영하고

1)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2008. 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2010. 7. 관계부처 및 경제교육관련단체 합동),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2011. 12. 기획재정부, 시장경제연구원), 학교 밖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2012. 1. 기획재정부) 등 참조.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에 응시한 학생 수는 2007학년도에 88,068명으로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한 학생의 27.8%였지만 2021학년도에는 6,480명으로 그 비율이 2.47%로 낮아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응시자 수는 6,865명으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1.39%의 선택률을 보였지만 문·이과가 통합된 상태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전 학년도와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3) 최대 응시할 수 있는 탐구 과목 수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대학수학능력시험(2005학년도~2011학년도)에서는 최대 4과목이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대학수학능력시험(2012학년도~2013학년도)에서는 최대 3과목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2012학년도~현재)에서는 최대 2과목으로 다시 줄어듦.

있지는 못하고 있다. The CORE Team의 *The Economy*는 ‘왜 경제학의 주제가 우리의 실생활의 경험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CORE Team, 2017, Preface). *The Economy*는 신고전과 경제학의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도 포스트 케인지안과 제도주의를 결합하여 주류 경제학에서 외면하는 제도, 권력, 불평등 등 중요한 현실 경제 문제들을 경제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이운호, 2020). 이에 한국경제교육학회는 2019년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경제 생활, 경제학 기초, 금융 경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다(이운호 외, 2020).

지난 10월 초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영역 연구진의 발표와 토론 과정을 보면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교육학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했던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본 후 조만간 고시될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생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지를 논의한다.

II.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1946년 교수요목 고시로부터 출발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미국 콜로라도 주의 교육과정 모형을 참조하여 공민(civic), 역사, 지리,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회생활과’라는 교과를 편성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경제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공민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등의 영역과 융합된 형태로,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민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박광희, 1965; 김종호, 1996; 이소연, 2021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경제 교육은 사회과 교육, 그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영역이 모두 포함된 공민 또는 일반 사회과 교육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학교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고 현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수립되고 있다. 경제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 편제되어 있어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경제 교육과정도 변화되어 왔다.

제1차 교육과정(1955년)에서 경제가 속한 공민 영역이 일반사회 영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사회 교과가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으로 분화된 것과 한국전쟁 후 도의 교육, 반공 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도덕 과목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1963년)은 인문계 필수 선택 과목으로 정치·경제를 신설했다. 이 시기에는 공통 과목으로 일반 사회, 국민 윤리⁴⁾, 국사를 유지한 채 세계사와 지리 I 을 공통 과목으로, 정치·경제와 지리 II를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 필수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여 일반 사회의 영역을 분화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제3차 교육과정(1973년)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사회과에서 국사 과목이 독립하고, 일반 사회 영역은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역사 영역은 세계사, 지리 영역은 국토 지리와

4) 도덕은 국민 윤리로 과목명을 변경했음.

인문 지리로 분화하였다. 정치·경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인문계 선택 과목이었지만 학문 중심 교육 사조에 따라 내용 요소가 경제학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제4차 교육과정(1981년)은 교육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전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분화되었던 과목이 다시 통합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회과 과목은 필수 과목인 사회 I, 선택 과목인 사회 II로 통합되었고 지리 영역도 필수 과목인 지리 I, 선택 과목인 지리 II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 과목은 사라지고 사회 I 과 사회 II의 일부 단원에서 경제 관련 내용이 다뤄지게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1988년)에서는 사회 I 과 사회 II 과목이 폐지되고 제3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 영역은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역사 영역은 세계사, 지리 영역은 국토 지리와 인문 지리로 환원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초 교육과 정보화 교육이 강조되면서 경제 교육이 크게 강화되어 이수 단위가 기존의 4~6단위에서 6단위로 상향되어 정치·경제 과목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경제학의 이론 체계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제6차 교육과정(1992년)에서는 통합 교육이 강조되면서 국사가 사회과로 복귀되고 일반 사회 영역과 지리 영역이 통합된 공통 사회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수립되어 경제 과목이 정치·경제에서 독립하여 신설되었다.⁵⁾ 이에 따라 일반 사회 영역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과목 등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분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1997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을 설정한 후 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이 마지막 해인 고등학교 1학년에 국민 공통 기본 과목으로서 사회와 국사가 개설되었고⁶⁾,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간 사회와 환경이 신설되었으며,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일반 사회 영역에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 법과 사회 등 4과목, 역사 영역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등 2과목, 지리 영역에서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등 3과목, 총 9과목이 신설 또는 개설되었다.⁷⁾

2007 개정 교육과정(2007년)부터는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시 개정으로 전환했다. 이 시기에는 역사 교육이 강화되면서 일반 선택 과목인 인간 사회와 환경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 과목에 역사 영역에 해당하는 한국 문화사가 신설되었다.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으로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 법과 사회 등 4과목이 개설되어 형식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경제 과목의 경우 시민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제 개념 및 이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 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제 교육이 강조되었다.⁸⁾ 이에 따라 2009년 3월 사회과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어 고등학교 공통 과목인 사회 과목에서 경제 관련 내용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5) 실생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생활 경제 과목도 이 시기에 교양 선택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6) 공통 사회는 사라지고 사회가 신설되었다.

7)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생활 경제가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8) 2009년 5월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

<표 1>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특징

교육과정 시기	특징 및 변화
교수 요목기 (194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는 독립 과목이 아닌 ‘국민’ 과목의 일부로 가르쳐졌음 • 중학교 5학년(현 고등학교 2학년)에서 ‘경제 문제’라는 제목으로 1년간 학습함
제1차 교육과정 (195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학습 내용이 속한 ‘국민’ 과목이 ‘일반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과목으로 ‘세계사’, ‘세계 지리’가 제시되었으나, ‘경제’는 선택 과목이 되지 못함
제2차 교육과정 (196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에서 경제가 ‘정치·경제’ 명칭으로 바뀌어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수 단위는 4단위였음 • 인문 과정의 학생들은 필수선택 과목으로 ‘정치·경제’를 이수하였음
제3차 교육과정 (197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는 ‘정치·경제’로 고등학교 과목으로 편성됨 • ‘정치·경제’는 인문계 학생들의 필수 선택 과목이었고, 인문계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5개 중 택 2의 선택 과목이었음
제4차 교육과정 (198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 선택 과목이 ‘사회Ⅰ’, ‘사회Ⅱ’로 변경되면서, 경제는 두 선택 과목에 단원의 일부로 포함됨 • ‘사회Ⅰ’에서는 ‘경제 생활’ 단원으로, ‘사회Ⅱ’에서는 심화된 ‘국민경제’ 단원으로 편성됨
제5차 교육과정 (198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가 ‘정치·경제’ 과목으로 환원되었음 • ‘정치·경제’ 6단위가 공통 필수로 이수되었음
제6차 교육과정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과목으로 과정보다 필수 과목으로 독자 과목이 되었으며, ‘공통사회’가 필수 과목이 됨 • ‘경제’ 과목은 4단위로 편성됨
제7차 교육과정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는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교육과정에 편성됨 • 사회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6단위를 기본으로 편성됨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는 사회과 선택 과목 10개 중의 하나로 고등학교 2, 3학년에 편성됨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에 편성되어 10개의 선택 과목 중 하나가 됨 •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편성됨 • 교양과목 ‘생활경제’도 폐지되었다가 ‘실용경제’로 부활함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교과 영역의 사회(역사/도덕)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9개 선택 과목 중의 하나로 ‘경제’가 편성됨 •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서도 경제 단원이 포함됨 • ‘경제’ 선택 과목은 5단위로 2단위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주 1) 각 교육과정의 연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함.

2) 각 교육과정이 시행된 시기는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름.

자료: 한정동 외(2019)

2009 개정 교육과정(2009년)은 기존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9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단축하고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택 과목 수를 축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역사 영역에서는 한국 문화사가 한국사로 전환되었고,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정치 등 2개 과목을 법과 정치를 통합되었으며, 지리 영역에서는 경제 지리를 폐지되어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 통합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고등학교 사회 과목이 부활하였다.⁹⁾

2015 개정 교육과정(2015년)은 문과와 이과의 통합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 사회과에서는 통합사회, 과학과에서는 통합과학을 신설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제시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과목 구성을 보면 한국사가 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으로 편재되고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명칭을 바꿨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Ⅲ. 2022 개정 교육과정

1. 배경

2022 교육과정 개정은 거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디지털 대전환,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인구 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미시적으로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 하반기에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군은 표와 같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2025년부터 특목고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 교과 중 전문 교과 I 과목이 폐지되어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중 융합 선택 또는 진로 선택으로 편재된다.

<표 2> 교과 개편 방안

< 현행 >		< 개편 방안 >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일반선택과목		일반 선택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 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전문	전문교과 I (특목고)		진로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교과 II (특성화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9) 교양 선택 과목인 생활 경제 과목도 2007년 선택 과목 수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2009년에 다시 실용 경제 과목으로 부활하였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20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교육부, 2021). 이후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기본 방향들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황규호, 2021).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불필요하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과밀·과부화된 교육과정에서 과목의 신설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목을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2. 쟁점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나타난 사회 교과군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사회 교과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교급별로 과목을 재구조화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교 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 등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적정해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내용을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엄선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며,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 교과 내에서의 논의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과목 수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과밀·과포화된 교육과정을 둘러싼 사회과 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교과별로 과목 수 조정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국가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탐구 영역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을 4개 이내의 과목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2021. 7. 27. 4차 회의 권고). 이에 대해 지리, 역사, 윤리 영역 연구진은 찬성하고, 일반사회 영역 연구진은 반대하면서 견해차를 보이자 위 위원회는 기존 안대로 4개 이내의 과목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2021. 9. 15. 8차 회의 2차 권고). 결국,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사회 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담당했던 연구진은 사회 교과군 선택 과목을 일반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목 유형 구분 없이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다(차조일 외, 2021).

<표 3> 영역별 선택 과목

일반 사회 영역	지리 영역	도덕 영역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시민과 정부 경제와 시민 법과 사회 사회문제 탐구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세계 생활 속 지리탐구 여행 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행복한 시민과 고전 A.I와 윤리의 만남 평화와 공존을 위한 윤리

위와 같은 갈등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일반 선택 과목에 영역별로 몇 과목을 남겨 두어야 하는데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3개 과목, 지리 영역에서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등 2개 과목, 도덕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2개 과목이 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1개 과목만 남기라고 한다면 다른 영역은 1개 과목을 줄이는 반면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2개 과목을 줄여야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반 사회 영역의 경우에는 교수 요목기(1946년)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법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 있지만 지리나 도덕 영역과는 달리 학문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성격이 짙어 과목을 줄이는 것이 해당 영역의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3.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경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서 일반사회 영역 연구진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화, 정치와 경제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시민과 정부, 경제와 시민, 법과 사회를, 융합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제 탐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과목 중 경제 영역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정치와 경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경제와 시민을 들 수 있다.

우선,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정치와 경제의 내용 체계는 <표 4>와 같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이 각각 2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대주제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시장과 경제 활동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5개 대단원 중 첫 2개 대단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즉, 현재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거시 경제(국가와 경제 활동), 국제 경제(세계 시장과 교육), 금융(경제생활과 금융)을 제외하여 경제학 기초와 미시 경제만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정치와 경제

대주제	소주제	핵심 내용 요소
I. 민주주의와 헌법	1.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2. 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 3.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국가기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우리나라 정부 형태,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II.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1. 정치와 정치과정 2. 선거와 정치 참여 3. 일상생활과 정치 참여	정치, 정치과정 선거, 선거 제도, 선거운동, 투표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
II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 2. 소비자와 합리적 소비 3. 기업과 생산 활동 4. 정부와 재정 운용	경제생활의 의미, 희소성, 경제 문제, 합리적 선택 소득·소비·저축의 관계, 소비자 주권, 합리적 소비 기업의 역할,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경제적 역할, 재정, 예산, 조세, 재정 운용
IV. 시장과 경제 활동	1. 시장의 원리와 가격의 기능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3.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	시장의 의미,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 가격의 기능 시장 가격의 결정, 시장 가격의 변동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보완, 정부 실패

자료: 차조일(2021)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시민과 경제의 내용 체계는 <표 5>와 같이 4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시민과 경제는 일반 선택 과목인 정치와 경제에서 경제학 기초와 미시 경제를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5개 대단원 중 나머지 3개 대단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거시 경제(국가와 경제 활동)가 경제 성장과 분배, 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로, 국제 경제(세계 시장과 교육)가 글로벌 경제와 시민으로, 금융(경제생활과 금융)이 금융 생활과 시민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주제와 핵심 내용 요소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사하지만 대주제에 ‘시민’을 포함하여 ‘시민으로서 나라 경제의 중요한 경제 문제와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차조일, 2021)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표 5> 시민과 경제의 내용 체계

대주제	소주제	핵심 내용 요소
I. 경제 성장과 분배	1.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 2. 경제 성장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3. 성장과 분배의 조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의 효과 소득 분배의 측정, 성장과 분배의 관계
II. 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	1. 물가 안정과 경제생활 2. 실업과 고용 안정 3.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	물가의 의미, 물가의 측정, 물가 상승의 영향 고용 지표, 실업의 요인, 고용 안정 대책 경기 변동, 경제 안정,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III. 글로벌 경제와 시민	1. 세계 속의 한국 경제 2. 교역의 필요성과 원리 3. 환율과 경제 생활	글로벌 경제의 의미, 세계 속 한국 경제의 위상 교역의 필요성, 교역의 원리 환율, 환율 변동의 요인, 환율과 개인 생활
IV. 금융 생활과 시민	1. 화폐와 금융 2. 금융 상품과 금융 소비자 3. 저축과 투자	화폐, 금융 제도, 디지털 시대의 금융 금융 상품, 금융 소비자, 금융 소비자 보호 저축, 투자, 자기 책임의 원칙

자료: 차조일(2021)

4. 한국경제교육학회와 한국경제학회의 경제교육과정 편제(안)

한국경제교육학회와 한국경제학회도 2022 개정교육과정(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경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쉬운 경제’, ‘생활 경제’, 그리고 ‘학생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편제(안)를 <표 6>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¹⁰⁾ 경제 교육과정으로 ‘경제생활’, ‘경제학 기초’, ‘금융경제’를 신설하거나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생활’ 과목을 신설하여 ‘쉬운 경제’, ‘실생활에 연계된 경제’를 지향하여 ‘어려운 경제’라는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기피되어 왔던 문제를 극복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상경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는 ‘경제학 기초’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경제’는 ‘실용경제’를 대체하여 금융산업의 경제 내 비중 확대와 금융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 선호 증대, 고령화에 따른 자

10) 2020년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산 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표 6>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편제(안)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교과: 『경제』(일반선택) • 교양 교과: 『실용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교과: 『경제생활』(일반선택) 『경제학기초』(진로선택) • 교양 교과: 『금융경제』

자료: 이윤호 외(2020)

한국경제교육학회에서 제시한 경제 교육과정 편제(안) 중 경제 생활의 내용 체계는 <표 7>과 같이 소득과 소비, 재무와 금융, 진로와 직업, 시장과 경제생활, 국가와 경제생활 등으로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경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경제 생활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소득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 • 소득과 예산 수립 • 소비자 권리와 책임
재무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주기와 재무 계획 •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 • 보험과 연금 • 부채와 신용 관리
진로와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창업과 진로 선택 • 근로자 보호 제도와 근로자의 권리 및 책임 • 창업 절차와 기업가 정신 및 책임
시장과 경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기능 • 시장의 종류 • 시장의 한계, 정부 개입, 정부의 한계
국가와 경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와 소득 재분배 • 고용 및 실업 관련 정책 • 물가, 환율

자료: 이윤호 외(2020)

최근 김재근 외(2021)는 경제 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구현하고, 경험과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 ‘시민 경제’ 교육과정(안)을 <표 8>과 같이 개발하였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제, 경제문제와 선택, 경제생활과 상호작용, 경제문제의 해결, 공공문제와 시민 등의 영역에 대해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진로 및 직업 선택,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 작용, 경제생활과 관련된 공공 문제, 미래의 경제문제와 시민의 자세 등을 다룬다. 앞서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제안한 경제 생활은 재무와 금융을 포

함하고 있는 반면 시민 경제는 공공 문제, 미래의 경제 문제와 시민의 자세를 다루면서 사회과학의 ‘시민’ 교육을 강조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표 8> 시민 경제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I.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활동 • 생산, 소비, 분배와 직업 활동 • 경제적 성공과 실패 사례와 그 요인
II. 경제문제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 • 합리적 소비 선택 • 진로 및 직업 선택
III. 경제생활과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과 상호 작용 • 경제 주체 사이의 이해 관계 •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 작용
IV. 경제문제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 • 자유로운 거래가 가져오는 이익과 문제점 • 정부의 역할과 정부 개입의 효과 • 경제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V. 공공문제와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례 • 경제생활과 관련된 공공 문제 • 미래의 경제문제와 시민의 자세

자료: 김재근 외(2021)

5. 평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법 영역이 묶여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학문의 성격이 짙은 것은 여러모로 일반 사회 영역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일반 사회 영역 내에서 하나의 주장을 펼치면 내분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다른 영역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 사회 영역 내에서 자신이 속한 학문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수 없다. 그렇다고 문제점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없다.

우선, 일반 사회 영역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응시율이 높은 사회·문화를 우선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 배치하고, 경제, 정치와 법을 통합한 정치와 경제를 함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법은 사라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진로 선택에서 융합 선택으로 심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선택에 법은 없는데 진로 또는 융합 선택에서 법을 심화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김명정, 2021). 경제, 정치와 법이 통합하여 정치와 경제 과목을 신설하는 것도 두 과목 중 어느 것도 선택하거나 버리기 힘들어 교육과정을 반반씩 나눠 집어넣는 것과 같다.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누구든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반 선택 과목에 남아있어야만 경제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선부른 답을 할 수 없다. 경제 과목으로만 치면 지금까지 선택의 기

회가 주어졌어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이과 학생 중 ‘경제’ 과목 응시자 수는 6,865명으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1.39%의 선택률에 그쳤다. 경제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어도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사회탐구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4개 또는 5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게 될 테니 두 배 이상의 학생이 응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미래의 일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2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3%에도 못 미치는 학생이 경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 한국경제교육학회의 연구 성과가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경험 중심, 역량 중심 경제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제안된 ‘시민 경제’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경제와 시민’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김재근 외, 2021). 물론 내용 체계를 들여다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의 경제와 시민 과목은 2015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후반부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 경제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일부’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경제와 시민 교육과정의 대주제에 ‘시민’이 명시되어 이론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아왔던 경제 과목이 생활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경제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사회과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IV. 결론

교수 요목기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경제 교육은 시기를 거치면서 질적으로는 내용 요소가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한편 양적으로도 교육의 분량이 많아져 왔다. 이는 경제 교육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강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의 경제 교육 강화가 현실적인 경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단적인 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응시자 수의 급감을 들 수 있다. 정부가 2009년에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경제 교육 활성화를 꾀했지만, 성과는 없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기만 하다.

더 착잡한 것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육이 사라진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8). 그러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사라지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응시할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학회의 연구 성과가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시민교육으로서 경험 중심, 역량 중심 경제 교육을 지향하는 ‘경제와 시민’ 과목이 생활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단초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사회과 교육에서의 경제 교육의 위상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현재 경제 교육은 사회과과, 그중에서도 일반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수 요목기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경제 교육이 강조되어 왔고, 2009년에 경제교육지원법으로 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의 비중은 점점 낮아져 왔다. 형식과 내용에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 교육이 사회과의 일환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르칠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과밀·과포화된 교육과정에서 경제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일반사회 내에서 경제 시수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고, 설사 늘어나더라도 사회과의 다른 영역, 즉 지리, 역사, 윤리 영역의 반대에 부딪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이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라는 4개의 틀에서 나와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현재의 틀 안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율이 높은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결국 경제 교육이 외면받는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가 역사 영역에 포함되지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경제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상생활에서 경제 문해력(literacy)이 매우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라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혹자는 경제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경제 교육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문해력이 낮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분야는 어떤 것일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금융 사기 등은 경제 문해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만큼 경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교육부(각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2008).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2008. 9).
- 기획재정부·시장경제연구원(2011).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2011. 12).
- 기획재정부(2012). 학교 밖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2012. 1).
- 김명정(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일반사회과 재구조화 방향’ 토론, 100-102,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
- 김재근·박영석·김경모(2021). 학교 경제 교육과정으로서 ‘시민 경제’의 개발 및 쟁점에 대한 성찰, 경제교육연구, 28(2), 1-26.
- 김종호(1996). 사회과 교육에서 경제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초중고 교육과정의 내용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8(1), 159-194.
- 박광희(1965). 한국 사회과의 성립과 그 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연(2021). 한국 경제교육과정의 변천,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03-12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교육학회.
- 이윤호(2020). 코어 경제, 표준 경제학과의 비교, 경제교육연구, 27(2), 1-27.
- 이윤호·김경모·김광호·김용민·김재근·박영석·장경호·한경동(2020).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기획재정부·경제교육학회.
- 차조일·김혜숙·박주현·배화순·김상범(2021).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3-72,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
- 황규호(2021). 2022 개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 연구, 2022 개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 공청회 자료집.
- The CORE Team (2017). *The Economy: Economics for a Changing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www.core-econ.org>)